광주 건설현장 위법사항 무더기 '철퇴'

광주노동청, 142곳 중 92곳 안전시설 미설치 등 확인

25개소 사법처리·67개소 1억9천500만 과태료 부과

광주 건설현장에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게 차지해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내 사망사고 위험 건설현장 142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펼친 결과 92곳에서 안전 시설 미설치 등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망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공정률 40-90%인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안전설치 취반 내역'과 '관리적 의무사항 위반' 여부 확인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142개소 사업장 가운데 25개소에 대해 사법처리, 67개소는 총 1억9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시설 설치 위반 가운데선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24건, 53%)가 가장 많았다.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작성(3건, 7%)과 보호구 미지급(3건, 7%)도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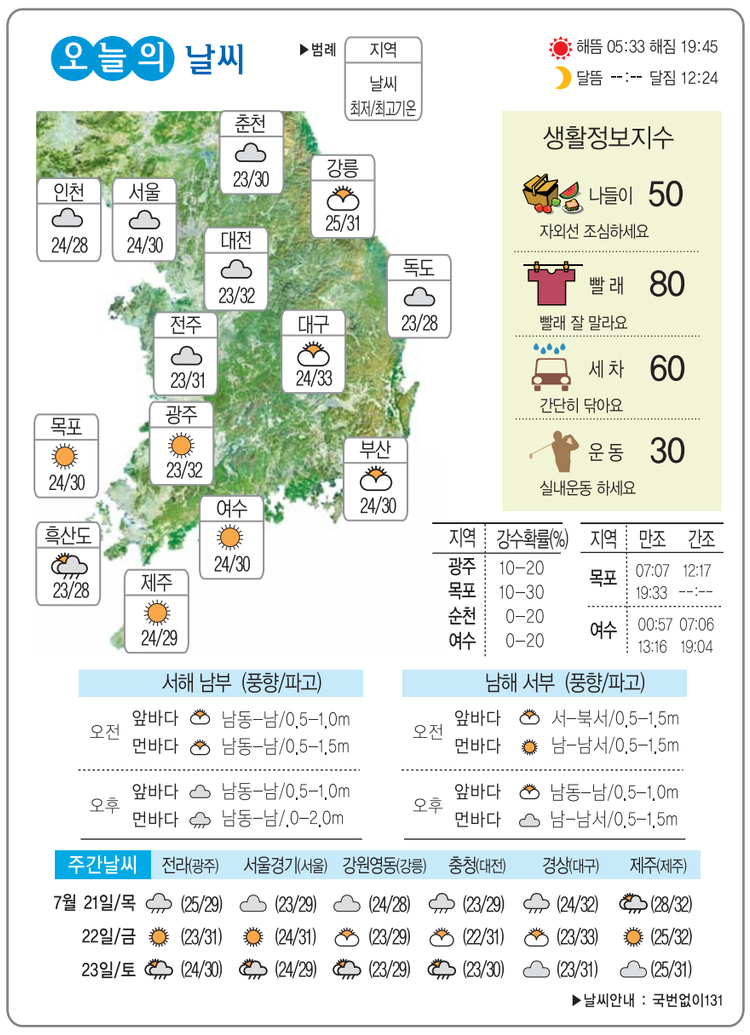
관리적 의무사항 위반에선 화학물질 안전정보인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미게시(41건, 2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표지 미설치(19건, 12%)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 권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15건,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미반영·목적외 사용(14건, 9%) 등이 다수 발견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반기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감독실시 전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해 현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위반요인을 스스로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道자치경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도청에서 한전KPS·한전KDN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범죄 피해자·노인·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이행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고위험 지적장애인을 위해 주거지에 내부영상망(CCTV)을 설치하고 소외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한전KPS, 한전KDN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폭염 탈출 '힘내수(水)드림 캠페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을로운수사랑봉사회와 남구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19일 관내 주월동 한 버스승강장에서 시민과 버스운수업종사자들에게 얼음생수와 쿨키트를 나눠주는 '힘내수(水)드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헌혈의집 첨단센터 22일 문연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오는 22일 헌혈의집 첨단센터를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센터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LC타워 2층에 들어선다.

첨단지구의 경우 약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지구 내 헌혈의집 부재로 북구 등 타 센터를 찾아 헌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헌혈의집 첨단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센터 내에 8대의 채혈침대가 설치돼 있으며 전혈 및 성분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개소일인 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개소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의집 첨단센터가 광주·전남 지역 혈액 수급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헌혈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정부,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하라"

광주·전남 농민단체들, 도의회 앞 기자회견 열어 촉구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8개 농민단체는 "정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쌀값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과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한 것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뒤처진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수입쌀 40만t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서구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광주 서구는 19일 "'서구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는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실현을 통해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광주 서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8월5일까지 서구톡톡·국민신문고·전자우편 등 온라인과 우편·방문·팩스 등 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상 1명에 50만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원, 장려상 6명에 각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청 기획실(062-360-7038)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영 기자

조선대 '메타버스 심리상담' MOU 체결

조선대학교 원스톱학생상담센터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업체 야타브엔터와 '메타버스 심리상담 연구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스톱학생상담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심리상담 수요 증가 해소와 온택트를 넘어 아바타를 통한 현실·가상 융합의 유텍트시대 상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조선대 원스톱학생상담센터가 세대별 학생들 간 상담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존에 진행했던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고도화 및 새로운 상담 수요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